

‘2년차 영건’ KIA 성영탁, 불펜 활력 불어 넣는다



8경기 10이닝 1홀드 평균자책점 0.00 맹활약
1군 데뷔전 이후 무실점 행진…과부하 속 단비

KIA타이거즈 2년차 우완 성영탁이 뒷문을 든 듯히 지키며 마운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성영탁은 지난 2024년 신인드래프트에서 10라운드 96순위로 KIA에 입단한 루키다. 입단 첫해인 지난해에는 1군 무대를 밟지 못했다. 2군에서는 23경기 40이닝 2승 2패 2홀드 평균자책점 4.05로 무난한 성적표를 작성했다. 그랬던 그가 올 시즌 1군에 올라 깜짝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10일 경기 전 기준 성영탁은 8경기 10이닝 1홀드 평균자책점 0.00으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데뷔전은 지난달 20일 kt위즈전이었다. 이날 성영탁은 팀이 2-5로 지고 있던 6회말 마운드에 올랐다. 두 타자 연속 범타로 처리한 그는 이후 안타와 볼넷을 내줬지만, 땅볼로 남은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7회말에는 뜬공과 땅볼 2개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그 결과 성적은 2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 성공적인 데뷔 투구였다. 이후에는 지난달 24일 삼성전 0.2이닝 무실점, 28일 키움전 0.1이닝 무실점으로 활약했다. 호투가 계속되자 그는 클리치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지난달 30일 kt전에서는 팀이 0-3으로 지고 있던 6회말에 등판해 2이닝 1볼넷 무실점으로 추격의 여지를 만들었다. 또 시즌 첫 연투였던 지난 3-4일 두산전에서는 각각 1이닝 무실점으로 팀의 연승을 이끌었다. 백미는 8일 한화전이었다. 이날 개인 한 경기 최다 이닝(2.2이닝)을 소화한 성영탁은 선발 양현종이 2.1이닝 5실점으로 강판당한 뒤 마운드를 이어받았다. 그는 등판 이후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경기 초반 상대에게 5점을 내주며 끌려가던 KIA는 성영탁의 활약에 힘입어 추격에 성공했고, 결국 연장전 끝에 7-6으로 승리를 따냈다.

성영탁의 등장은 KIA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다.

KIA 불펜은 현재 필승조였던 박도규가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아웃됐고, 임기영과 최지민 등이 부진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이 올 시즌 선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고, 팽팽한 승부가 많아 불펜이 가동될 자리가 잦았다.

결국 전상현, 이준영, 조상우 등이 연달아 등판하게 되면서 과부하를 겪었다. 지난해 통합우승의 원동력이었던 불펜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날씨 또한 더워지면서 극심한 체력소모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자원들이 힘을 내준다면 주요 자원들의 연투를 피하고 마운드를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부상자들이 유독 많은 KIA가 부상병 복귀전인 6월 한 달을 버티기도 수월해진다.

KIA는 10일 경기 전 기준 31승 1무 30패 승률 0.508로 리그 7위에 자리했다. 순위 반등을 위해서는 백업 자원들의 활약이 절실하다.

성영탁이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팀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국대검도관, 국제오픈 사회인 대회 ‘선전’

배향화, 여성년 결승 김민재 2-1 제압
안보현·김우석·진명훈 남자단체 2위

광주 국대검도관이 ‘제38회 국제오픈 한국사회인 검도대회’에서 우승기를 들어 올리는 등 맹활약했다.

세계 6개국 동호인들이 출전에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아르헨티나 등 6개국의 1596명 선수단이 참가했다. 경기는 20~70대까지 성별, 연령별로 나눠 진행됐다.

광주 국대검도관은 여자청년부 개인전에서 배향화가 결승전에 올라 김민재 (박연정검도관)를 2-1로 제압하며 우승기를 들어 올렸다.

여자장년부에서는 김정미가 준결승에서 이자은 (용운검도관)에 1-2로 석패하며 3위를, 남자청년부 안보현도 준결승에서 김동균 (거제검도관)에게



광주 국대검도관이 ‘제38회 국제오픈 한국사회인 검도대회’에서 우승기를 들어 올리는 등 맹활약했다.

1-2로 패하며 3위를 차지했다.

남자청년부 단체전 결승에서는 서울 마곡선검도관에게 선봉 안보현 1-2 패, 중견 김우석 2-0 승, 주장 진명훈이 1-2로 패하며 전체 스코어 1-2로 준우승에 만족했다.

오길현 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지역 생활체육 검도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 생활체육 검도인들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4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오늘 개막

15일까지 남부대시립수영장서
4개 종목 1500명 선수 열띤 경쟁

‘제4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가 11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다.

(사) 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수영연맹이 주관,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15일까지 경영·수구·다이빙·아티스틱스위밍 등 4개 종목에서 유년·초등·중등·고등·대학·일반부 등 6개 분야 선수 1500여명이 열띤 경쟁을 벌인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김우민, 황선우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각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을 노린다.

이창현 광주수영연맹 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평소와 같고 익숙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면서 “스포츠를 통해 ‘365일 더(The) 활력 넘치는 스포츠 관광도시 광주’ 조성을 추진하면서 매년 수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유산사업으로 창설된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장성군, 장보고기 조정대회 준우승
여자대학·일반부 금1·동2 획득

장성군 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이 전국 단위 조정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조정팀은 최근 부산시 서낙동강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51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 참가해 여대·일반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육경 감독과 김미수, 유지현, 이수민 선수 4명으로 구성된 장성군청 조정팀은 여대·일반부 경량급 더블스컬에서 7분 42초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중량급 더블스컬, 중량급 싱글스컬에서도 각각 동메달을 획득해 총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준우승에 올랐다.

김육경 감독은 “포기를 모르고 노력해 온 선수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성군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중 군수는 “뛰어난 성적을 거둔 장성군청 조정팀에 군민을 대표해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선수들이 양질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 참가

12~13일 대구 일원서…배구 등 4개 종목 120여 명 참가

광주시체육회와 대구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광주-대구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가 12일부터 이틀간 대구시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배구, 검도, 족구, 볼링 등 4개 종목 120여 명의 선수 및 동호인이 참가해 대구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광주선수단은 12일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에 도착해 환영식 및 문화탐방을 시작으로 환영 만찬 행사와 다음 날 대구시 일원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리는 스포츠교류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는 지난 2013년 광주-대구 양 도시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뜻으로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근거로 격년제로 상호 초청해 개최하고 있다.

전갑수 광주체육회장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광주-대구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류사업 본보기(롤모델)가 되길 바란다”며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대구체육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광주시체육회와 대구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광주-대구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가 12일부터 이틀간 대구시 일원에서 열린다.

KLPGA 노승희, 한국여자오픈 2연패 도전

내일부터 나흘간 충북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서 경쟁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노승희(사진)가 21년 만에 내셔널타이틀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노승희는 12일부터 나흘 동안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DB그룹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12억원)에 작년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한다.

노승희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무려 21년 만에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선수가 된다.

이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선수는 고우순(1988, 1989년), 김미현(1995, 1996년), 강수연(2000, 2001년), 송보배(2003, 2004년) 4명뿐이다. 송보배가 2연패를 달성한 이후 20년 동안 2년 연속 우승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한국여자오픈은 연속 우승을 허용하지 않는 대회로 유명하다.

하지만 노승희의 2연패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

대회가 열리는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은 장타보다는 정교한 샷으로 전략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에게 아주 유리한 코스다.

이곳에서 대회가 열린 2021년부터 작년까지 우승한 박민지, 임희정, 홍지원, 그리고 노승희는 모



두 정타자는 아니지만 샷이 정확하고 퍼팅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다.

노승희는 페어웨이안착률 1위(83.49%)가 말해 주듯 KLPGA 투어에서 가장 드라이버를 정확하게 친다. 드라이버 정확도가

웨이와 비슷하다는 찬사까지 듣는다.

다만 올해 노승희는 작년보다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은 게 걸림돌이다.

노승희는 지난해 한국여자오픈 우승 전까지 12개 대회에서 5번이나 톱10에 진입하는 등 빼어난 샷 감각을 보였지만 올해는 9개 대회에서 두산 매치플레이 3위를 빼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공동 10위가 최고 성적이다.

장기인 퍼팅에서 애를 먹고 있는 노승희의 타이틀 방어 열쇠는 그런 플레이로 보인다.

KLPGA 투어에서 장타자도 꼽히는 방신실, 황유민, 배소현, 고지우 등이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도 관심 포인트다. 연합뉴스